

周知되었거니와 그
後 收藏家の 好意로
筆者가 實物을 調査
한 바 있기에 簡單히
紹介하려 한다.

西紀 一九三九年
(昭和十四年) 水原
에서 日人骨董商 林
氏로부터 入手하였
다고 한다. 總高二

二·五cm、下徑一六·八cm、上徑一〇·三cm의 小品이나 各部樣式이 具
備되어 있고 保存도 完全하며 特히 鍾體의 銘文은 注目되었었다. 頂上에
는 龍鈕와 甬筒이 있는데 圓形의 甬筒頂上에는 小珠 六粒이 配置되었고
龍頭의 形態 및 彫飾은 完全하나 右足이 缺損되었으며 左足에는 一寶珠
를 갖고 있다. 上緣에는 立狀花文帶가 둘러 있고 그 下部에는 一條의 細
線과 連珠文을 둘러 上帶와 境界를 이루었다. 上, 下帶는 雷紋이며 그
內에는 圓圈內에 梵字가 들어 있는데 上帶에 十二字(圓圈徑 〇·八cm
⑤④③②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
下帶에는 七字(圓圈徑 一·一cm
⑤④③②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
를 陽刻하였다. 肩上 四處의 雷文乳廓內

에는 九乳가 花瓣內에 突起되어 있으며 各乳廓下에는 八瓣蓮花紋撞座가
있어 全四座이다. 鍾腹間地에는 菩薩像 四軀가 配置되었는바 座佛로서
複瓣의 仰蓮上에 合掌結跏하고 頭身光을 具備하였으며 寶冠, 瓔珞, 通
肩한 衣文等의 彫飾이 流麗하고 刻明하다. 撞座間에는 銘文 六行이 陰刻
되었는데 그 銘文은 「正豐二年 庚戌亂中 汀寺住 持比丘宗 玠發心 □□
□□」로 判讀되었다. 上記銘에서 「正豐一年」은 「正隆二年」으로 高麗太
祖의 父王隆의 緯를 避하여 豐字로 代한 것으로 이는 高麗 毅宗十一年
西紀一五七년에 該當한다. 形態가 端雅하고 彫鏤가 織細하며 保存도
良好하여 더욱이 在銘高麗遺鍾으로서 研究의 新資料로 重要視되는 바이
다.

甬筒高 五cm、上帶幅 一·五cm、下帶幅 二cm、撞座徑 四·二cm、座像
高 五cm 幅 三cm 乳廓上幅 五cm 下幅 七cm 長 六cm

(註) 本誌第二卷第一號一一頁 參照

中原郡 薪泥面 院坪里 石造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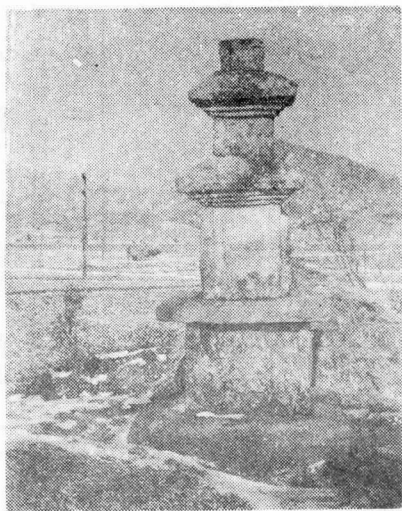
鄭 明 鎬

지난 二月初旬에 忠州地方을 調査한 바 忠州起點 서을向 三十里地點
道路邊에 彌勒石像과 石燈臺石 及 三層石塔이 있다. 이에 對하여 朝鮮
寶物古蹟調査資料에 依하면 「高サ凡一丈五尺ノ石佛 高サ八尺ノ石塔 高
サ三尺ノ石燈臺石各一アリ 附近ニ瓦片散在ス」로만 되어 있으며 洞里人
도 寺名에 對하여 傳하는 말이 없다고 하며 數年前이 곳에 조고단 庵
字을 짓고 僧一名이 있었다고 한다.

一、彌勒佛

橢圓形 自然石上에 十三의 複瓣을 陽刻하고 一段의 臺를 構成한 後佛
像을 直立시켰다. 이 基臺는 弱質의 烏石이므로 甚한 風化를 당하여 織
細한 部分이 모두 磨
滅當하였으나 佛像
은 花崗石이므로 비
較的 保存狀態가 良
好하다. 佛像의 頭
上에는 八角寶蓋를
덮었으며 물매의 曲
線은 完全한 斜線을
이루고 추녀의 높이
도 매우 얕은 편이
고 下端 中央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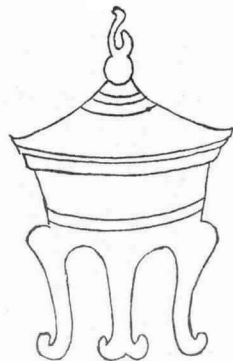
字形으로 胸部를 露出시킨채 무릎밑까지 垂下하였다. 兩足を 내놓고 있는데 右足은 後補이다.

二、石燈

火舍石以上이 缺失된 四角形의 石燈으로서 複瓣으로 伏蓮 仰蓮이 날카롭고 迫力있는 솜씨로 表現되었다. 下臺石에는 三段의 받침이 있고 四角竿柱上에는 二段의 받침이 있는 中臺石이 있다. 高麗의 典型的인 作品이다.

三、三層石塔

佛像에서 東北約 七m地點에 있다. 三層屋蓋石以上을 缺한 것으로 數年前까지는 完全하였다 한다. 本塔의 地覆石은 自然石이며 四枚의 面石으로 基壇을 構築하였는데 北面의 一枚가 缺하였다. 東面과 西面의 面



S=10:1

石에는 各各 香爐를 陰刻(圖面參照)하였는데 이러한 예는 매우 드문 것으로서 재미있는 資料인 듯하다. 面石은 隅柱를 兼備하고 甲石에는 一段의 塔身받침이 있다. 一層塔身의 四面에 四天王을 浮刻하였는데 約 十cm 가량 突出되어 있으나 磨滅이 甚하여 細部

肉髻을 兼하고 있다. 머리는 素髮이며 白毫孔이 있고 兩耳는 길게 처져 있으며 慈容은 豐滿溫和하며 목에는 굵은 三道가 있다. 法衣는 通肩으로 胸上에 올려놓은 右手의 손뼉을 덮고 與願印의 左手에 걸친 衣端은 U

를 알 수 없다. 屋蓋받침은 三段이며 落水面隅棟 轉角을 다듬은 手法은 매우 둔하고 투박하게 보여지며 塔身自體를 보아도 幅과 높이의 比例가 좋지 않아 不安全한 感覺을 주며 縮少率도 甚하다. 塔은 南南東을 向하고 있다.

以上の 作品中 佛像과 石燈은 彫飾으로 보아 高麗初期로 推定되며 塔은 高麗中期以後의 것으로 보여진다.

佛像 全高 四·三四m 身高 三·八一m 石燈高 一·二七m 石塔全高 二·九五m 地覆石幅 一·八八m

人面鬼瓦의 一例

張 南 植

慶州 月城內에서 出土되었다는 灰白色 土로 된 이 鬼面瓦는 縱十七cm 橫二十二cm 厚 四cm로서 底面이 平面이고 左右兩側에 同一한 文樣으로 流雲文같은 것이 簡略하게 있으며 上半中央에 구멍이 있고 左右에 銳利한 齒牙같은 모양을 陽刻하고 其下는 雲文을 넣은 듯한데 不幸이도 左上部가 缺損되었으나 原狀

